

국제적 포장전시회로 발돋움한 ProPak China 2006

선진국 기술 및 품질 높은 최신기계 선보여

김 영 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부회장

금년 12회째를 맞아 개막된 ProPak China 2006 전시회에 한국관이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와 KOTRA(대표이사 홍기화)의 합동 주관으로 추진되어 2006년 7월11일부터 7월13일 까지 3일간 중국 상해국제박람센터(SNIEC)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전체 규모로는 전시면적 22,000㎡와 21개국 492개 업체(외국 : 362사, 중국 : 130사)의 참가로 2005년 전시회보다 다소 규모가 증가하였고 외국 참가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73.5%로 나타난 것이 이 전시회의 특징으로, 상당수의 해외바이어가 이 전시회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주최 측의 자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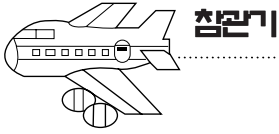
이 전시회는 2001년도 전시회부터 매년 한국포장기계협회와 KOTRA가 공동으로 국가관을 형성하여 금년까지 6번째로 참가하는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시회로 일본을 비롯한 외국사가 국가관 규모로 참가하는 정평 있는 중국 내의 국제 포장전시회로 자리 매김한 전시회이다.

금년 한국관에는 (주)리팩을 비롯하여 백천기계(주), 동방자동포장기계(주), (주)한국크리에타, (주)선진에스엠, 을성정공, (주)가성팩, 천세

도요기계(주), (주)나우시스템, (주)스카이소프트젤, (주)인터맥마킹, (주)세진테크, (주)DKM, (주)자비스, (주)가가, KOTRA, 한국포장기계협회 등 17개 회사가 참가하여 총 198㎡의 부스 운영으로 10억불 상당의 상담실적을 기록하고 계약추진 3억불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등 총 21개국이 참가하여 포장의 모든 것, 즉 기술과 품질 그리고 신뢰성 높은 최신 기계와 제품을 선보임으로 마치 독일 뒤셀도르프의 Inter Pack 을 방불케 한 만큼 국제적이고 수준 높은 전시회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198㎡) 독일(500㎡) 이탈리아(84㎡) 일본(706㎡) 미국(270㎡) 대만(378㎡) 영국(177㎡) 등이 국가관으로 참가하여 국제적인 포장 전시회의 규모를 자랑하였으며 국가관 참가국 중 일본이 최대 규모인 706㎡ 그리고 그 뒤



◀ ProPak China 2006

를 독일이 500㎡의 대규모로 국가관을 형성함으로써 외국관 전시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2007년도에도 금년보다 약 15% 정도 증가한 국가관 전시면적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시 주최자는 전하고 있다.

이처럼 포장기계의 선두주자인 독일, 미국, 일본 등의 대규모 전시 참가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시장 점유를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해석되며 KOTRA 상해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포장 산업은 고속성장을 유지해 공업 총 생산량은 20% 증가, 생산 총액은 3,000억위엔을 넘었으며 업계의 이익 성장률은 44.6%에 이르렀다.

판매수입 성장률도 21.4%에 달했으며, 2005년도 중국 내의 포장기계 생산량은 약 67만대이었고, 2006년부터 2010년 까지는 약 93만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1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는 중국 기업의 기술향상의 한계로 인하여 수입 수요가 계속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장기계의 고속 정밀 신뢰성의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향후 중국의 포장기술이 특히 컴퓨터 라이징화, 원격 자동제어기술, 씰링기술 등의 자동화 기술의 미흡으로 향후 몇 년간은 외국 포장기계의 수입 선호가 계속 늘 것이라는 분석은 이들 선진 국가들의 중국 내 전시참가로 보아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관람객 역시 국제 전시회 답게 30여개국으로부터 13,036명이 방문 상담하였으며 이중 외국 바이어는 15%인 1972명(한국인의 방문은 약 100명 정도)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전시기간 중 눈길을 끈 회사로는 외국관내 일본의 중국 현지 생산업체인 상해 ISHIDA사, 상해 四國사, TOPAK, YAMATO, ANRITSU 등의 각종 포장기계는 방문객의 시선을 집중하기에 충분하였고 한국관에는 (주)리팩의 파우치 충전기와 백천기계의 액체 충전기, (주)한국크리에타의 튜브 충전기와 (주)선진에스엠의 각종 라벨러와, 을성정



▲ ProPak China 2006 한국관

공과 (주)가성팩의 삼면포장기, 진공포장기, 각종 밴드실러, 동방포장기계(주)의 진공포장기와 자동용기포장기 및 (주)자비스의 이물질검출기 등이 관심의 대상 품목이었고 중국관에서는 YUEDONG MACHINERY의 파우치 충전기, 컵 실러 및 병충전기 등이 눈길을 끌고 있었으며 중국의 각종 기계들의 성능과 품질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한국산 기계들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거대한 중국시장의 진출은 몇 년 이내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 KOTRA와 한국포장기계협회의 홍보부스를 통하여 내년 4월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KOREA PACK 2007의 홍보를 실시하여 중국인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주)아성기계가 자사 카다록 전시를 통하여 자체 기계의 상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KOTRA가 발굴한

250여명의 바이어를 직접 전시장으로 초청하여 해당 참가사 부스에 안내하여 소개하고 상담케 함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한 상담을 벌여 큰 성과를 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KOTRA본사 전시팀의 사전 친절한 안내와 설명회 그리고 현지 KOTRA 상해 무역관 본부장의 세심한 배려와 담당 부장의 열성적인 지원은 본 전시회의 참가 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첨언하며 국내 ProPak China의 한국 AGENCY인 IPR 직원의 현지 출장으로 인한 도움으로 한국관 참가사 모두들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 ProPak China는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로 2007년도에는 7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같은 장소인 SNIEC에서 개최되며 역시 한국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늘어난 250m²의 면적을 주최자 측에 요구하고 귀국하였다. ☐